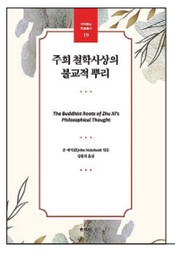
주희 신유학 뿌리엔 '불교' 있었다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
존 메이컴 엮음 / 정환희 옮김
운주사 /3만원

주희 철학체계 구축에 끼친 불교 연구
저자 5명의 글 5개 장에 나누어 소개
주희 철학적 성취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석굴암 본존불. 사진제공=국가유산청

중국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주희는 불교를 맹렬하게 배척하고 비판했다. 그런 주희는 불교의 어떤 점을 비판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비판'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교사상을 전유·변용했던 것일까.

신간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는 동아시아 국가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신유학, 특히 주희의 사상이 상당 부분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로서 대한불교진흥원이 발간하고 있는 대원불교학술총서 19권이다.

불교나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신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하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불교와 유교 두 방면의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주희가 자신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에 있어 불교의 사상과 철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제대로 탐구되지 않았다.

이 책은 주희가 자신의 철학적 사상에 포함시킨 매우 광범위한 지적 자원들을 조명함으로써, 불교에서 파생된 모델들이 그의 철학적 레퍼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책은 저자 5명의 글을 5개 장에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주희의 철학적 레퍼토리가 명백히 불교적 기원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념적 구조와 문제들을 포함한다면, 이 사실은 주희의 철학적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논문 투고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질문들을 숙고해야 했다. 이 책의 다섯 가지 연구들은 주희의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에 대한 복잡하면서도 풍부한 묘사를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이 책의 저자들은 주희가 자신의 철학사상에 반영한 매우 광범위한 지적 자원들을 조명하며 그 작업을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주희가 철학자로서 성취한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제1장은 주희와 선불교의 여래장에 대한 탐구가 중심이다. 저자 존 위르겐센은 주희와 선불교의 마음론이 동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르겐센은 방대한 전거들을 제공하면서 주희를 유교적 '북종선'이라고 주장한다.

제2장에서 저스틴 티왈드는 주희의 불교 비판에 주목한다. 많은 연구들이 주희의 불교 비판이 피상적이고 부정확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대로라면 불교와 주희 간의 대화는 기껏 허구적이고 표면적인 이해 방식에 매개되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티왈드는 이기심, 구원, 자기수양의 측면에 있어 불교와 주희의 입장 사이에 어떤 근원적인 차이가 존재했는지를 구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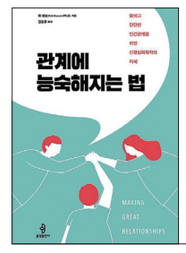
제3장에서 스티븐 앵글은 주희의 지각 인식론과 불교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앵글은 불교가 중국문화에 깊게 뿌리 내렸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희가 사용하는 불교 용어들이 실제로는 유교, 불교, 도교 간의 깊은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받은 '공유된 담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제4장에서 브룩 지포린은 화엄, 천태, 주희 간의 체용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중국불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지포린의 탁월한 철학적 논증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불교와 주희의 일원론과 무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 존 메이컴은 주희의 일원론 체계가 불교의 일원론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메이컴은 주희의 리-기 개념이 중국불교의 리-사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희 철학에 있어 불교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몇몇 지점에서 저자들 사이의 균열을 감지할 수 있듯이, 저자들의 입장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과 구절을 두고서도 저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와 균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번역했다. 그럼으로써 대중은 주희 철학사상에 끼친 불교적 영향을 바라보는 복수의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

'건강한 관계' 위한 지혜 쌓이면 행복해져



관계에 능숙해지는 법
릭 핸슨 지음 / 김윤종 옮김
불광출판사 / 2만천원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대부분 다른 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완벽한 혼자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관계'란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인간의 기쁨과 슬픔이 비롯된다. 신간 〈관계에 능숙해지는 법〉은 인간관계가 야기하는 고통을 서술하고 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소개한다. 그 고통 역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수천 건의 과학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메시지를 전한다. 인간관계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는 인간에게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책은 교활한 직장 동료, 최악의 룸메이트, 멀어지는 연인 등 어렵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마주한 대중이 그 관계를 극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이야기한다. 특히 불교 등의 고전적 지혜와 최근의 과학적 연구, 그리고 저자 자신의 임상 경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관계에 신선한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하고도 실천 가능한 '연습'을 매 주제마다 소개한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가 쌓일수록 대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책은 먼저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일러준다. 이는 타인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갖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분쟁을 다루는 법'을 소개한다. 인생의 어느 때라도 나타날 수 있는 '도발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보호하며, 상대방을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할말은 다하고, 들은 말은 충분이 다 듣는 법에 대해 조언한다.

독자는 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자기 내면을 통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된다.

책은 혼자 읽을 수도,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누군가와 함께 읽을 수도 있다. 다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건 치료 요법이 아니며,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적 처방을 대체할 수도 없다.

박재완 기자

'가사체 금강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정본 우리말 금강경 -가사체 금강경 해설
조현춘 · 천희완 공저
운주사 / 2만5천원

구마라집본, 한문 5본 범어 2본 등과 비교 · 검토해 〈정본 한문 금강경〉 완성
〈정본 한문 금강경〉을 4 · 4조 가사체로 가사체 만들어진 과정 설명한 해설서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부대중이 찾는 한국불교의 대표 경전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대중은 구마라집본을 가장 많이 애독해 왔다. 하지만 문맥상이나 의미상에서 볼 때, 구마라집본의 한자나 어휘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다수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본과의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구마라집 한문본 〈금강경〉을 다른 한문 5본(유지본, 진제본, 급다본, 현장본, 의정본), 산스크리트어(범어) 2본, 티베트어본, 몽골어본 등과 비교·검토해 〈정본 한문 금강경〉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가사체 금강경〉이 쓰여졌다.

한편 〈정본 한문 금강경〉은 구마라집본과 조계종 표준본에서 500여 자를 수정 보완 것으로, 〈금강경〉의 논리 구조와 문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고 보완했다. 여기에 〈금강경〉 공부와 독송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조현춘 교수와 설명이 필요 없는 대강백 무비 스님이 현대어로 번역하고, 이를 누구나 함께 독송하기 쉽도록 4·4조의 한글 가사체로 다듬어 만들어 낸 것이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사체 금강경〉이다.

이번 책 〈정본 우리말 금강경-가사체 금강경 해설〉은 이 〈가사체 금강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지를 소개한다. 즉 9종의 판본을 비교해 완성한 〈정본 한문 금강경〉을 토대로 언어학과 논리학에 맞게 번역하고, 이를 다시 의미가 명확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그리고 다시 독송하기 편한 가사체로 만들어진 과정을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락마다 조계종의 〈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번역을 나란히 배치,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어느 번역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부록으로 〈정본 우리말 반야심경〉을 수록했는데, 이 역시 〈정본 우리말 금강경〉과 같이 한문 교감을 통한 정본화, 이를 언어학 논리학에 맞게 번역한 뒤 다시 독송하기 편하게 가사체로 다듬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책은 제1부 '정본화의 과정', 제2부 '우리말 정본화의 구체적 과정', 제3부 '금강경의 기본 논리'를 표시한 가사체 금강경으로 이뤄졌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올바른 번역과 이해하기 쉬운 표현, 독송하기 편한 4·4조 가사체 등이 어우러진 이 책은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선사禪師 '일엽'으로!

一葉

1세대 신여성 김일엽.
최초 동아일보 여성 기자, 최초 여성잡지 〈신여자〉 창간, 그리고 자유연애.
스승 만공스님 만나 27년간의 절필과 선수행을 통해 최초 비구니 선사가 된 일엽스님.

승복을 입고 다닌 동국대 최초의 비구니인 월송스님이 밝히는 일엽스님의 비화.
세간의 오해에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스승에 대한 소문 속 진실.
반세기가 지나서야 꼭꼭 묻어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다.



구술 월송스님,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